

朝鮮朝初期韓國農學의成立過程(Ⅱ) 古農書를 중심으로

金 榮 鎮

院長, Ph.D.(作物學)

VI. 過渡期農書의 抄錄 및 編纂特徵

VII. 過渡期農書의 韓國農學史上意義

VI. 過渡期農書의 抄錄 및 編纂特徵

1. 現存過渡期農書의 種類

本稿는 앞서(本誌 6卷 3號) 麗末까지의 우리農業技術과 中國農書의 이용 상황을 살피고 농업기술의 발전에 따라 중국농서 이용만으로는 우리나라의 農業技術改善이나 農業發展에 한계가 있었음을 고찰하였다. 이를 다시 요약하면 첫째로, 中國農書는 그 著述基盤이 대부분 黃河流域을 중심으로 한 華北地方의 農法이어서 우선 氣候風土面에서 韓半島와 같을 수 없었다.

둘째로, 風土가 다르니만큼 風土를 기반으로 하는 作付方式이나 農業組織의 발전이 중국의 그것과 같을 수가 없었다. 우선 조방하게 보더라도 華北地方은 田作中心의 旱地農法이고 韓半島는 奋作中心의 半濕潤地農法이었다. 또 作付方式으로는 華北地方이 休閑農法인데 반하여 우

리의 그것은 休閑農法에서 한 단계 발전된 連作農法이었다. 連作農法이었다는 사실은 15世紀初三南地方의 農法을 수집정리한 農事直說에서 찾을 수 있다. 農事直說에서의 作付方式은 連作내지 1年 2作의 作付方式이었다.

세째로, 이와 같은 한반도 내의 農業기술의 발전은 경종법에 관한 한 갈수록 華北의 農法과 격차가 커짐으로써 기존의 중국 農서로서는 農書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여전하에서 새로운 農業知識이 요청된 것은 불가피하고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실정에 맞는 새 農書의 편찬은 그렇게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우선 아쉬운 대로 여러 中國農書 중에서 당시의 우리 農業실정에 맞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만을 골라 쓸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중국 農서의 抄錄本은 中國農書 이용에서 韓國農書 이용으로 이행되는 과정의 일시적, 과도기적 현상이었다. 이 과도기 農서로서의 抄錄本은 여러 종류가 있었을 것이나 現存하고 있는 것은 전기한 바 趙浚등의 新編集成馬醫方(牛醫方)(1399), 韓尚德의 養蠶經驗撮要(1415), 朴興生의 摄要新書(耕稼, 蠶桑門)(1415~1429) 등 3종이 있을 뿐이다. 이

중 新編集成馬醫方과 摄要新書는 抄錄原典이 한 종류 이상이고 또 현 시점에서 그 原典(本)을 구할 수 없으므로 우선 原典對照가 가능한 養蠶經驗撮要를 고찰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2. 養蠶經驗撮要의抄錄態度와特徵

養蠶經驗撮要是 중국 농서인 農桑輯要 卷4의 養蠶 부분을 초록한 것이다. 農桑輯要是 元世祖의 命으로 元의 大司農司가 古今의 農書를 참고하여 1273년에 엮은 7卷 3冊의 종합농업기술서다. 이 농서는 初版 이후 수없이 重版을 거듭하여 왔다. 清高宗의 命으로 紀昀이 附序한 1773년의 版本만 보아도 1314년 蔡文淵序의 版本을 비롯하여 1321년, 1329년, 1330년 등 여러 版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版을 거듭할 때마다 부분적인 수정이 가해졌는지는 알 수 있으나 例의 상 1773년의 紀昀附序本과 1774년의 武英殿聚珍版을抄錄原本으로 가정하고 비교코자 한다.

이 兩本을 보면 農桑輯要是 卷1에 典訓과 耕墾, 卷2에 播種(作物各論), 卷3에 栽桑, 卷4에 養蠶, 卷5에 瓜菜(菜蔬園藝各論)와 果實(果樹園藝各論), 卷6에 竹木(경제수종과 藥草), 卷7에 攝畜(축산, 양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蠶桑 관계로는 卷3의 栽桑과 卷4의 養蠶인바, 초록본인 養蠶經驗撮要是 栽桑을 송두리째 제외하고 卷4의 養蠶에서만 초록하고 있다. 우선 養蠶經驗撮要가 초록하고 있는 내용을 살피기 위하여 兩書의 목차격인 細條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農桑輯要 卷4 養蠶

1. 論蠶性
2. 收種
3. 擇繭(出種者)
4. 浴連

(收貯蠶連) 5. 收乾桑葉 6. 製豆粉米粉 7. 收牛糞 8. 收蓼草 9. 收蒿梢 10. 收治苦薦 11. 治蠶具(蠶糧附) 12. 蠶室 13. 火倉 14. 安梱 15. 變色 16. 生蛾 17. 下蛾 18. 凉暖總論 19. 飼養總論 20. 用葉(長文의 註) 21. 分壘總論 22. 初飼蛾 23. 擘黑 24. 頭眠壘飼 25. 停眠壘飼 26. 大眠壘飼 27. 養四眠蠶 28. 植蠶之利 29. 晚蠶之害 30. 十體 31. 三光 32. 八宜 33. 三稀 34. 五廣 35. 雜忌 36. 簇蠶 37. 擇繭(3번과는 내용이 다름) 38. 繼絲 39. 蒸餾繭法 40. 夏秋蠶法

養蠶經驗撮要

- 1) 論蠶性
- 2) 收種(種子收取時)
- 3) 浴連(蠶種紙乙洗浴)
- 4) 收乾桑葉
- 5) 製豆粉米粉
- 6) 收牛糞
- 7) 收蓼草
- 8) 收治苦薦
- 9) 變色(蠶種色改變)
- 10) 生蛾(蠶種始出)
- 11) 下蛾(蠶子生出下箔時)
- 12) 蠶室(養蠶處所)
- 13) 飼養
- 14) 分壘(移蠶分箱)
- 15) 初飼蛾(蠶子初生養飼)
- 16) 擘黑(蠶生三日第分蠶)
- 17) 頭眠壘飼(第一眠移蠶養飼[停眠壘飼, 大眠壘飼])
- 18) 用葉(養蠶桑葉)
- 19) 候病理療(蠶病乙看審敷治)
- 20) 簇蠶(蠶上薪)
- 21) 雜忌
- 22) 祀先蠶神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農桑輯要 養蠶條는 모두 40개 細條로 나누어 풀이하고 있는데 이를抄錄한 養蠶經驗撮要是 22개 細條로 되어 있다. 여기서 밝힐 것은 현재 전해지고 있는 養蠶經驗撮要에는 중간에 세 곳의 落張이 있다. 細條 3)과 10)부분과 17)~18)사이에 각각 한 장씩 落張이 되어 있는바 3)과 10)은 각 細條의 내용 일부만 없어져 細條數에는 변함이 없으나 細條 17) 18) 사이에는 내용검토로 보아 停眠壘飼는 송두리째 없어지고 大眠壘飼는 細條題目만 없어졌으나 내용의 일부는 남아 있다. 이로 보아 養蠶經驗撮要의 없어진 부분을 포함한 細條題目은 사

실상 24개 細條가 될 것이다. 또 24개 細條 중에는 農桑輯要 養蠶條의 細條에 들어 있지 않은 19) 候病理療와 22) 祀先蠶神을 신설하여 추가하고 있는데 候病理療는 分擣總論의 중간 부분에 있는 註文을 옮겨다 신설한 것이며 祀先蠶神은 農桑輯要 卷1의 典訓에 있는 蠶事起本條에서 일부를 따오고 있다. 즉 先蠶神을 蠶事起本에 있는 대로 苑窳夫人寓氏公主를 인용하고 제사 방법만 농상집요 이외에서 44字를 가져다 풀이하고 있다. 養蠶經驗撮要가 農桑輯要 이외에서 가져온 유일한 구절은 이 구절뿐이다(祀先蠶神; 正月五日書苑窳夫人寓氏公主 先蠶神號於或板或紙掛安於當處午地 設香卓於前 具酒食菓餅蠶婦虔心禱及至蠶月朔望行祭勿用酒代茶湯). 따라서 細條 祀先蠶神도 초록으로 본다면 養蠶經驗撮要是 細條面에서 모두 24개로서 農桑輯要 40개 細條의 60%를 초록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글자 수로는 3,200여 자로 農桑輯要 卷4의 12,200여字의 26%가 되나 養蠶經驗撮要의 落張된 3張의 분량을 감안하면 抄錄 분량은 대략 原本의 약 3분의 1 가량이 될 것으로 믿어진다.

다음으로 抄錄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은 擇蠶, 收蒿梢, 治蠶具, 火倉, 安梱, 凉暖總論, 養四眠蠶, 賽蠶之利, 晚蠶之害, 十體, 三光, 八宜, 三稀, 五廣, 擇繭(앞의 택잠과는 의미가 다름), 緑絲, 蒸餾繭法, 夏秋蠶法 등이다. 이것을 다시 요약하여 보면 첫째로 양잠 부속시설이나 蠶具 등이 가장 많이 제외되어 있고 다음이 成繭이 된 후 고치고르기에서 실을 켜는 과정이 제외되었으며 또 四眠蠶이나 夏秋蠶法 등이 빠져 있다. 기타 항목들은 양잠과정에 나오는 것을 관점은 달리하여 다시 요약한 것으로 예컨대 「五廣」을 보면 양잠 과정에서는 인력, 뽕, 잠실, 잠박, 설 등 다섯 가지가 충분하여야 한다는 것을 재강조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재강조한 것은 초록본의 성격상 초록해 넣을 수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 주의를 요하는 것은 四眠蠶 기르기와 夏秋蠶 기르기가 초록에서 빠진 것인데 四眠蠶이나 夏秋蠶 기르기는 기술적으로 三眠蠶이나 春蠶 기르기보다 한층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초록에서 제외시킨 것은 우리의 기술이 이를 숙달하고 있어서라기 보다 우리는 거리가 멀어서 초록을 하여도 초록본의 실용성이 없어 제외시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점에서 볼 때 養蠶技術에 관한 한 우리 기술이 中國의 기술을 따라 갈 수가 없었던 것으로 믿어진다. 다음으로 蠶具나 양잠 부속시설 그리고 成繭 이후 製絲 과정이 초록되지 않은 것은 구태여 초록을 다시 하지 않아도 우리의 기술수준이 그 정도는 숙지하고 있었음을 뜻한다.

다음으로 抄錄原本의 原文이나 註文을 가리지 않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골라 초록하되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原本의 細條에 없는 것도 候病理療나 祀先蠶神 같은 독창적 細條를 만들었으며 초록 순서도 반드시 原本에 따르지 않고 있다. 예컨대 「用葉」條는 原本에서 19. 飼養總論 다음에 있어 누에가 깨어나기 전에 준비사항으로 취급되고 있는데 抄錄本에서는 飼養過程이 끝나 누에를 설에 올리기 전에 蠶病과 같이 특별 취급을 하고 있다.

다음, 일단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抄錄한 것은 예외없이 모두 이두문(吏讀文)으로 해설을 붙이고 있는데 繭을 “高致乙”식으로 표시하고 있다. 심지어 細條題目에도 반이 넘게 吏讀體의 풀이를 붙이고 있다. 예컨대 3) 浴連條에 “蠶種紙乙洗浴”이라는 吏讀體 註文을 붙인 것이라든

가 候病理療條에 “蠶病乙看審敷治”라 한 것들이다.

또 抄錄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나 되도록이면 의미만 통하면 한 자라도 줄이려고 한 점이다. 예컨대 첫머리의原本 1. 論蠶性에서 “蠶陽物 大惡水故 蠶食而不飲”으로 되어 있는 것을抄錄本 1) 論蠶性에서는 “蠶陽物 大惡水故 食而不飲”이라 하여 뒷부분에 나오는 “蠶”字 한 자를 줄이고 있다.

이상 養蠶經驗撮要의抄錄態度를 살렸거니와 이를 통한抄錄本으로서本書의特徵을 다시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本書는 官撰農書라는 점이다. 일찌기太宗께서 儒臣에게 명하여 옛 農書(中國農書)에서 간절히 필요한 말만을 취하여 역되어 鄉言(吏讀)으로 註를 달아 넣되 頒行하라는 지시(嘗命儒臣 採取古農書切用之語 附註鄉言 刊板頒行)에 따라 右代言 韓尙德이 이를 수행한 것이다.

韓尙德은 太宗 14년 1월에서 16년 3월까지 右代言의 벼슬에 있었는바 代言은 承政院 承旨의 별칭이다. 養蠶經驗撮要末尾를 보면 皇明永樂十三年乙未五月日 右代言臣 韩尙德 敬奉王旨翻譯蠶書刊行頒布라 되어 있는데 永樂十三年은 太宗 15년(1415)으로 太宗의 지시에 따라 本書의 초록이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예는 現傳하지는 않으나 같은時期에 大提學 李行이 초록하고 議政府舍人 郭存中이 附註(이두)하여 1417년에 발간한 「養蠶方」과 類를 같이 하는 것이다.

둘째로, 養蠶經驗撮要是 單一原本을 초록한 것이라서 필요부분의 취사선택이 한정될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아마도 麗末 李兆年(1269~1343)의 「鷺鵠方」과 類를 같이 하는 초록방식이며 같은 過渡期農書이면서 新編集成馬醫方이나

撮要新書와 다르다 하겠다.

세째로, 비록 單一原本에서 초록하였다 하더라도抄錄의 순서나 배열 그리고 細條項의 신설과 내용의 취사선택 면에서 독자적 主見를 가지고 우리 나라의 현실에 적합하도록抄錄하고 있으며 우리 技術로 조만간 따라가기 어려운 것은 초록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네째로, 초록문에 대한 번역文(附註鄉言)의 분량이 초록문의 분량보다 많고 우리 기술수준에 맞도록 풀이되고 있다.

3. 新編集成馬醫方(附牛醫方)의 編纂態度와 特徵

본서는 趙浚, 金士衡, 權仲和, 韓尙敦 등이 1399년에 편찬한 獸醫書다. 趙浚은 高麗末期의 廢政革罷에 유공하여 공신이 되면서 忠義君에 봉하여졌으나 恭讓王 4年 鄭道傳과 모의, 이성계를 추대하여 開國功臣으로 門下右侍中, 平壤伯을 역임하였고 定宗 때 左丞相, 太宗 5년에 領議政府事로도 봉직하였다.

金士衡은 고려 恭愍王 때 代言, 知申事를 거쳐 肇王 때 門下贊成事が 되고 李成桂를 襲贊하여 開國一等功臣이 되면서 上洛伯에 封해졌다. 太祖 5년 左政丞을 거친 사람이다.

權仲和는 고려 肇王 때 門下贊成事, 李太祖 때 判門下府事를 거쳐 醜川伯에 封해졌으며 醫藥, 地理, 卜筮에 능통한 사람이다.

韓尙敦은 高麗 때 司膳署令, 密直司右副代言, 朝鮮開國功臣으로서 中樞院都承旨를 거쳐 道觀察使를 역임하고 西原公에 封해졌으며 太宗丙申年에 領議政을 거친 사람이다.

이상과 같이 본서를 엮은 분들은 麗末의 官吏로 있으면서 李朝의 開國功臣이 되고 또 相公의 지위에 오른 분들이며, 이 중에서 醫藥에 정통한 분은 權仲和뿐이다.

이 책의 구성은 馬醫方과 牛醫方을 合本한 것이나 表題는 新編集成馬醫方으로 되어 있어 表題만 가지고는 馬醫方만 풀이한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는 兩本은 완전히 독립된 것이며 序文마저도 牛醫方에 별도로 붙어 있다.

新編集成馬醫方과 유사한 것으로 朝鮮牛馬醫方이 있는데 이는 1580년에 全州에서 복간한 것을壬辰倭亂때 日人们이 가져다 日語(가다가나)식의 토를 달아 복간한 것이다. 내용에는 약간의 添削이 있으나 대체로 新編集成馬醫方과 같은 바본서가 合本인 이상 日人们과 같이 牛馬醫方 또는 馬牛醫方이라고 하기 더 적절하지 않았나 믿어진다.

馬醫方에는 點痛論, 混晴蟲論, 胡骨把膀論, 察口色論 등을 비롯하여 18종의 痘, 良馬의 相을 보는 法, 좋은 말의 旋毛 그림, 相毛旋歌, 말의 수명, 이빨로 말의 나이를 알아보는 그림, 피를 빼내는 법, 말의 민첩함을 상보는 법, 말의 사양법, 수말이 싸우지 않게 기르는 법, 征馬를 견실하게 기르는 법, 東人(한국인)의 경험에 의한 牧養法, 다섯 가지 勞病, 일곱 가지 傷病, 34종의 病源歌(病狀圖와 藥), 앓는 말의 맥보기, 六陽六陰圖, 五臟(肺, 心, 肝, 脾, 腎)各附病證治, 風門, 五臟汗, 五臟黃, 諸黃門, 諸脹門, 骨眠門, 諸熟門, 瘰疫門, 鼻瘻門, 諸瘡門, 喉腫門, 打破門, 瘰蹠門, 流瘻門, 雜病門 등이 수록되어 있다.

牛醫方에는 마의방과 같이 房士良의 서문에 이어 소의 상보는 법, 牛舍 설치의 吉地 선택, 소를 기르는 데 꺼리는 일, 우사 건축의 택일, 소의 털과 毛色의 상보기, 瘰疫門, 눈병, 코병, 口舌病, 목구멍병, 心病, 肺病, 해수병, 脹病, 糞血, 尿血, 中惡 등이 풀이되어 있다. 馬醫方과 牛醫方을 비교해 보면 馬醫方에 비하여 牛醫方은 전체의 분량이 20% 정도밖에 안되며 圖解說

明에 있어서도 말은 72종이나 되는데 소의 경우는 9종밖에 안된다.

다음, 本書編纂의 동기를 보면 養蠶經驗撮要에서와 같이 직접적으로 王命에 의한 것은 아니나 房士良의 馬醫方 序文을 보면 「上이 至仁하사 醫國壽民하시는 뜻을 널리께서 萬物에 미치고자 본서를 엮게 되었다는 것이다」(上至仁 當醫國壽民之餘 推廣是心 以及於萬物). 또 牛醫方 序文을 보면 「나라와 百姓에게 유공함이 지대한 소는 임금께서 國初 아래 사사로운 屠畜을 痛禁하고 드니어 法令(甲令)을 제정하여 제도로 삼았으니 참으로 仁의 지극함이요 義의 극진함이라」(有功於民社大矣…… (中略)上至懷已於國初 痛禁私宰不忍之心著之甲令可謂仁之至 義之盡也). 이로써 볼 때 이 醫方의 저술은 國防이나 農耕上에 중요한 이 가축들을 醫治코자 하는 上(임금)의 뜻을 따라 撰者들이 저술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權近의 陽村集에 있는 鄉藥濟生集成方 서문을 보면 本書가 당초 藥제생집성방의 부록으로 附編될 예정이었던 것 같다 (……名之曰鄉藥濟生集成方附以牛醫方……).

그러나 本書가 己卯(1399) 4月 16日자로 출판된 데 반하여 藥제생집성방이 牛朔정도 늦게 발간된 것을 보면 당초에는 藥제생집성방의 부록으로 간행할 예정이었으나 印刊에 시간이 걸리고 본서나 藥제생집성방이 모두 내용이 방대하므로 각각 別本으로 간행한 것이라고 짐작된다.

다음 本書의 편찬태도를 보면 養蠶經驗撮要와는 類를 달리하고 있다. 이는 첫째로, 기존의 中國文獻을 초록하여 單一本을 초록한 것이 아니고 여러 農書에서抄錄하였다는 점이다. 그原本을 입수할 길이 없어 어떤 書誌에서 얼마나抄錄하였는지 알 길이 없으나 적어도 房士良의

서문으로 보아 한 종 이상인 것만은 확실하다. 즉 「본서를 엮음에 날(經)은 伯樂의 글로써 하고 씨(緯)는 원나라의 비결로써 하되 효과적인 방법을 초록하였다」(撰集馬醫方於是 經以伯樂之經 緯以元朝之訣 摄諸書可效之方)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摄諸書란 여러 책에서抄錄하였다 는 뜻이다. 그 중 伯樂의 글이란 秦나라 孫陽의 저술인 伯樂相馬經과 伯樂治馬雜病經을 뜻하나 내용으로 보아 주로 후자를抄錄原本으로 한 것 같다. 伯樂은 孫陽의 號이다. 여하간 本書 이외에 元代의 秘訣도 함께 초록하였다 하였는데 이는 麗末鮮初에 우리 나라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었던 農桑輯要 卷七에 나오는 莊畜條中 養馬牛總論, 馬(驢驥附), 牛(水牛附)條 등 약 2,500字 가운데 일부를 초록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중국농서의抄錄뿐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慣行되던治療法을 채록하여 본서에 편입시키고 있다. 房씨의 서문에도 東人(한국인)이 이미 시험해 본 기술을 채택하여 이 책을 엮었다(採東人已試之術以成是編)는 구절이 있을뿐 아니라 馬醫方내에 말을 진실하게 기르는 법(銅征馬令硬實之法) 중 「又東人經驗牧養法」이라 하여 340字 정도 우리 나라의 經驗方을 풀이하여 삽입시키고 있고 牛醫方에도 咳嗽門 중 「東人經驗治卒喘嗽」이 들어 있다.

다만 우리 나라의 기존 農書에도 당연히 인용되었을 것이나 당시에는 우리 나라에 이런 農書가 없었기 때문에 인용되지 못하였을 뿐이다.

이제 본서 편찬의 특징을 요약하면 첫째로, 本書도 官撰農書라는 점이다. 직접적으로 王命의 근거는 없으나 당시 典醫少監이었던 房氏의 서문에 上(임금, 定宗)의 뜻을 따랐다거나 法令으로 소의 도축을 痛禁시켰다는 당시의 상황, 그리고 鄉藥濟生集成方 편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

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또 편찬자들이 모두 정부의 最高位職에 있던 사람들이라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둘째로, 2개 이상의 中國農書를 摄要하면서 우리 나라慣行獸醫術을 본서 편찬에 도입함으로써 뒤에서 말하는 摄要新書와 類를 같이 하면서單一 中國農書를抄錄한 養蠶經驗撮要와는 類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세째로, 우리 農學史의 本書가 獸醫書로서 최초의 農書인 동시에 기존 農書나 편찬 당시의慣行法을 편찬에 도입함으로써 후일 우리나라 農書편찬의 方法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4. 摄要新書(耕稼門, 養桑門)

이 책은 上下 2卷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자는 5世紀初 菊堂 朴興生(1374~1446)이다. 본서는 저술된 뒤 그대로秘藏되어 전해 오던 것을 後孫인 朴重浩, 震浩 형제가 1894년에 비로소 木版活字로印刊한 것이다. 朴興生은 音律家로 유명한 朴壠의 從兄으로 桑村 金自粹의 門人이며 中司馬兩試에 合格하여 후일 昌平縣令(천남 담양)을 역임했다.

이 책의 구성은 上卷에 胎產, 冠禮, 婚姻, 上官, 起造, 興工, 動土, 造門, 造倉, 廚竈, 井泉, 起廟, 檻棧 등 13門이 수록되어 있고 下卷은 목록에 이어 入宅, 出行, 行船, 耕稼, 養桑, 祭祀, 病患, 醫藥, 喪事, 斬草, 安葬, 穢辟, 占候 등 13개 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전체적으로 볼 때 農書라기 보다는 일종의 方述雜書의 일종이다. 漢代의 「雜陰陽書」를 인용함으로써 易學上의 五行풀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많이 다루어져 있는 것은 擇日과 方位에 따른 吉凶禍福을 짐치는 내용으로 占術書 같은 감을 준다. 그러나 農書의

일종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下卷에 들어 있는 耕稼와 繡桑의 兩門 때문이다.

이 책의 著述動機는 金台濟의 서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日常의 필요에 따른 利用書를 저술코자 함이었다. 그러한 근거는 전기한 바 目錄 자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내용이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占筮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당시의 과학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方術의 秘方에 의존한 바 커던 데 기인하는 것으로 믿어진다.

다음으로本書의 顛轉年도가 언제인가 하는 점인데 本書의 繡桑門을 보면 養蠶經驗撮要를 대부분 인용하고 있으면서도 農事直說의 文體나 서술방식을 전혀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養蠶經驗撮要가 초록된 1415년에서 農事直說이 顛轉되기 전인 1429년 사이의 14년간에 顛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朴興生이 農事直說을 엮은 鄭招(?~1434)와 거의 같은 年代의 사람으로 그의 나이 50세 전후일 때 저술한 것으로 믿어진다.

이 책의 저술 태도를 보면 中國農書로는 雜陰陽書, 沔勝之書, 志林 등을 한 구절씩 짧막하게 인용하면서 引用書目을 밝히고 있다. 그밖에 四時纂要, 農桑輯要是 引用書目은 밝히지 않고 있으나 文章의 구절이 이를 書目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그는 본서를 엮으면서 분량은 적으나 老農田話에서 俗傳, 謬云 등의 引用題下에 당시의 우리 나라 慣行農法을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本書가 갖는 특징을 들면 첫째로, 本書는 官撰農書가 아니라는 점이다. 만일 본서가 官撰이었다면 占術의 내용이 들어 있기 어렵고, 또 앞에서 든 養蠶經驗撮要나 新編集成馬醫方과 같이 印刊되지 않았을 리 없다. 또 그가 縣令으로

在職中일 때도 아닌 것 같다. 만일 그가 재직중이었다면 최초의 農桑輯要 복간본이 江陽(합천)에서 姜蕃가 1372년에 印刊한 것과 같이 그도 縣財政으로 인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로, 作物學書나 園藝書로는 불완전하나마 本書가 우리 나라 最初의 農書라는 점이다. 따라서 農事直說이 최초의 農書라고 하는 宮嶋 등의 說은 채검토되어야 한다.

세째로, 本書는 國內外 農書뿐 아니라 당시의 관행 農法을 저술에 도입함으로써 新編集成馬醫方과 더불어 農書編纂의 새로운 方法을 확립하였다는 점이다.

네째로, 老農田話 중 俗傳, 謬云 등을 통하여 당시의 우리 農法의 수준을 희미하게나마 추측할 수 있게 하였을 뿐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 風土 중심의 農書를 저술하려고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 風土에 맞는 農書를 저술코자 하였던 것은 農事直說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우리 나라 識者나 士大夫 사이에 이미 팽배하게 인식되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VII. 過渡期 農書의 韓國農學史上意義

좁은 의미로서 農學의 기초적 임무는 農業生產을 발전시키는 데 있다. 따라서 보다 經濟的이고도 많은 生產을 위해서 經驗한 바를 批判 또는 反省하고 보다 나은 生產增大的 方案을 講究하는 것이 곧 農學이다. 때로 옛날에는 農耕活動은 있었으나 農學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으나 그것은 認識의 차이에서 오는 차각이다. 최근과 같이 組織的이고 密度있

는研究를 단기간내에 이루지는 않았어도 農學研究는 有史 이래 서서히 계속되어 왔다. 다만 그 발전의 속도가 현재에 비해서 완만하였을 뿐이다. 作付方式의 예를 들어 보면 休閑農法에서 連作農法으로 발전하고 連作農法이 더욱 발전하여 2年 3作으이나 1年 2作의 作付方式으로 발전한 것은 이미 경험한 바를 토대로 한 反省과 批判의 결과 이루어진 農學의 소산이다. 最近世에 와서 經驗의 기간을 단축시키고자 圖式化된 研究機關을 두고 專門人力을 통한 성과를 촉진하는 등 방법의 차이는 있으나 예나 지금이나 合理的인 農業生產의 增大方案을 강구하는 데는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이 研究成果를 農學發展의 段階에 따라 알아볼 수 있도록 축적시켜 둔 것이 農書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農書의 중요성이 인정되거나와 불행히도 우리는 麗末 이전의 農學을 살필 수 있는 農書의 저술이나 보존이 없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은 麗末 이전에는 거의 專用하다시피 中國農書를 이용하여 왔다는 점이다. 그러나 鮮初에 접어들면서 農業技術의 발전과 더불어 中國農書의 效用에 한계를 느끼고 韓國의 현실에 맞는 風土 중심의 農學을 발전시키게 되었다. 바로 이 風土 중심의 農學의始源이 이들 過渡期農書이다. 종래 農事直說이 우리 나라 최초의 風土農書라고 알려져 있으나 이와 같은 견해는 農事直說 이전의 過渡期農書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제 過渡期農書들이 우리 나라 農學史에 차지하는 意義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過渡期農書들은 中國農學으로부터 韓國農學이 분리 독립하는 과정의 過渡期의 農書라는 점이다. 따라서 대부분 中國農書의抄錄이나 摘要된 부분이 과도기 農서로서의 대부분을 구

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養蠶經驗撮要에서 祀先蠶神의 1句, 摘要新書에서는 老農田話에서 俗 또는 俗傳, 謠云 등 3句, 新編集成馬醫方에서는 馬醫方에서 1節, 牛醫方에서 1節 등으로 통틀어 볼 때 우리 나라의 儻行農法이 이를 과도기 農書에 편입된 분량은 불과 몇 퍼센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이들 農書에 收錄된 內容은 우리 技術로 일부 관행되었거나 보급 가능한 것을 수록한 것이므로 우리는 이 과도기 農서를 통해 麗末鮮初의 우리 農業技術이나 農學水準을 理解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과도기 農서가 갖는 우리 農학사상의 의의는 적지 않다.

둘째로, 이들 과도기 農서들은 우리 나라 最初의 農書들이다. 그 내용이 우리 獨자적 農서를 꾸리고자 시도된 것이라서 우리 農學(또는 農書)史上 最初의 農學 또는 農書가 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獸醫書로는 新編集成馬醫方, 農蠶書로서는 摘要新書, 蠶書로는 養蠶經驗撮要가 될 것이다. 따라서 農事直說이 우리 나라 最初의 農學(書)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意見을 달리하거니와 우리 나라 農學의 實證的 源流는 이들 農書에 두어야 할 것이다.

세째로, 이들 農書들은 적으나마 우리 風土에 맞는 農書를 쓰려고 하였는바 이는 農學의 方法面에서 自然環境을 가장 중요한 因子로 중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이들이 우리 農學史에서 차지하는 의의는 또한 크다 하겠다.

네째로, 이들 農書들은 國內外 農書를抄錄하거나 既存의 經驗을 農書에 收斂시키되 中國農서의 現存태도를 그대로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 獨自의 現存을 폐하였는바 이는 우리 나라 農書編纂에 있어서 새로운 方法을 확립시켰다는 점에서 과도기 農서의 의의는 크다.

다섯째로, 이들 과도기 농서들은 王命에 의한 정부의 官撰이거나 정부의 高位職에 있었던 지 도층에 의해서 엮어졌다는 점이다. 우리는 당시의 指導層이 食糧增產이나 農法改良을 위해 힘 쓴 한 단면을 이들 過渡期農書를 통해 엿볼 수 있다는 점도 농정상 간파할 수 있는 점이다.

이와 같은 過渡期農書의 단계를 지나 후일 韓國農學의 완전한 成立이 가능하였거니와 이들 過渡期農書는 農事直說 같은 風土 중심의 農學을 확립시키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밑거름이 된 것이다.

引用文獻

- 趙 渚 1399, 新編集成馬醫方(附牛醫方).
 朴興生 1415~29, 摄要新書下卷(耕稼, 蠶桑門).
 韓尚德 1415, 養蠶經驗撮要.
 金榮鎮 1972, 「蠶絲學古典研究」, pp. 284~288.

- 李光麟 1965, “養蠶經驗撮要에 對하여”『歷史學報』28).
- 司農司 1773, 農桑輯要卷3~4(紀昀附序本).
 _____ 1774, " " (武英殿聚珍版).
 中 淵 1655, 農家集成(勸農教文太宗條).
 李兆年 1269~1343, 鷹鵠方.
 趙 渚 1399, 朝鮮牛馬醫方(日語附吐本).
 申瑾徹 1976, 「古典韓國馬醫方全書」(譯本).
 權 近 1674, 陽村集(1672 陽村先生文集).
 王毓瑚 1975, 「中國農學書錄」, pp. 27~28.
 天野元之助 1975, 「中國古農書考」.
 齊藤之男 1968, 「日本農學史」, pp. 1~2.
 金榮鎮 1984, “撮要新書에 관한 考察,”「鄭奎鎔先生華甲論文集」.
 金容燮 1981, “農書小史,”「農書 I」, p. 4.
 _____ 1983, “農書小史,”「韓國文獻研究의 現況과 展望」, p. 68.
 日本農學會 1981, 「日本農學研究」.
 鄭 招 1429, 農事直說(大豆小豆條).
 李春寧 1970, “韓國農業技術史,”「韓國文化史大系」III, (科學, 技術).